

6월 3주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요

-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9절 (6월 10일 본문)
- **포인트:**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 싸울 대상이에요.

≡ 1. 찬양

(경배와 찬양) 세상 흔들리고(오직 믿음으로)

≡ 2. 기도

하나님,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모였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으로 저희 가족이 하나 되게 해 주세요.

≡ 3. 말씀

베드로전서 5:8~9을 함께 읽습니다(말씀을 3번 읽으세요).

*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역개정판 성경>

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

<우리말성경>

8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9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 본문 이해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기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해요. 마귀의 시험과 고난은 나만 겪는 일이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속이고 흔들어요. 마귀를 물리치는 비결은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 이름으로 담대히 맞서 싸우는 거예요.

□ 인도자를 위한 본문 이해

베드로는 박해를 견디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고 당부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위협적이며 더 큰 영향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고후 5:7). 원수 마귀는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고 힘이 있다고 속여요. 우리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지 않으면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두려움으로 위축되어 믿음을 포기하고 절망하게 돼요. 그렇기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마귀의 거짓 속삭임과 계속되는 참소를 대적하며 적극적으로 싸워야 해요. 바울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해요(엡 6:13~18). 언제 어디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기억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다는 것은 경비병이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을 말해요. 베드로의 경고는 초대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분주하고 바쁜 삶, 돈을 의지하는 삶,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그들과 같이 되려고 성공에 집착하는 삶 등 우리의 믿음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하는 요소가 주변에 참 많아요. 그런 세상에서 경계를 늦추지 말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해요.

≡ 4. 나눔

1) 베드로는 왜 근신하고(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당부했을까요?(8~9절)

■ 저학년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8~9절)

■ 유아·유치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누구를 대적하라고 했나요?(8~9절)

□ 질문 가이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고 경비를 서는 것처럼 모든 상황을 믿음 안에서 비추어 보며 집중하는 삶의 태도를 말해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베드로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해요. 바울은 이 같은 태도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에 비유해요(엡 6:13~18).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갖추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고 말해요. 즉 믿음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삶은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비춰 보며 사는 삶을 말해요.

2) 일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 오늘부터 시작할 것과 멈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저학년**

믿음 안에서 깨어 있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유아·유치**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더 튼튼해질까요?

□ **질문 가이드**

각자 일과를 떠올려 보세요. 계획과 선택, 마음에 품은 의도와 생각, 행동, 사람들과의 관계 등에서 믿음을 따라 살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삶은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가족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학교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의도하는 것을 이루는 과정 등 모든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우선되어야 해요. 내가 기준이 되고 세상 판단이 기준이 되면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그분의 기준에 삶을 맞추며 순종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 **5. 감사하기**

우리 가족이 깨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세요.

≡ **6. 기도**

하나님,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더는 속지 않기를 원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덧입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담대히 마귀를 대적하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